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5년간 국비 300억 지원·세계 혜택·실증사업 등 수행 한전 기술·전남 자연환경 활용 160개 기업 설립·육성 전남도, 3100명 고용·2200억원 생산 유발효과 기대

나주 혁신산단과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강소특구에 향후 5년간 연구소기업 60개, 기술창업기업 100개를 설립, 육성하고 한전의 에너지 관련 기술, 전남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역 기술 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계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매년 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법인·소득·취득·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구 내에서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특구는 왕곡면 혁신산단과 빛가람동 혁신도시 산학연클러

스터 일원 1.69km 규모로, 전국 최초의 기업형 연구개발특구다. 나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과 배후단지로 구성된다. 기술핵심기관(0.26km)은 한국전력 본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다. 배후단지는 기술사업화 핵심지구인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0.5km)와 함께 기술생태계 순환지구인 나주 혁신일반산업단지(0.93km)다. 특히분야는 한전이 보유한 세계적 특허 기술과 전남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지능형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다. 전남도는 강소특구에 향후 5년간 연구소기업 60개 설립을 추진하고 기술창업 1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기술이전-기술창업 연구소 설립-생산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공기업 선순환 모델을 구현해 3100명의 고용과 2200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한전 공대 우수인력 육성과 더불어 삼박자를 완성하게 돼 이를 계기로 블루에너지 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구축하겠다"며 "향후 한전 공대 연구소-클러스터 융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강소특구로 편입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글로벌 사이언스파크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나주와 함께 경북 구미, 서울 흥릉, 울산 울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작·간접 효과로 기업유치 1767개, 고용창출 1만3771명, 매출증대 34조2000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美 아마존 브랜드관 인기몰이 표고버섯·청국장·김 등 13만달러 수출 선적

전남도는 27일 미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물량은 유기농 표고버섯과 유기농쌀, 유자차, 청국장, 김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 35개 품목에 13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 4일 브랜드관 개장시 입점 시킨 품목들이 품질됨에 따라 추가 선적됐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성비축기지에서 가진 선적식에는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전라남도 브랜드관 운영사인 크리에이티브(Kreassive LLC)의 셴장(Sean Chang) 대표, 아놀드 전(Arnold Jeon)부대표, 전남 수

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날 선장 대표를 초대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40여개 입점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마존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 성공전략 컨설팅'을 개최하고, 수출기업 제품 품평회도 함께 진행했다. 현지 운영사는 향후 2주간 도내 시·군과 수출기업을 방문해 제품 현지화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2-3주마다 정기적으로 수출물량을 선적하고 오는 8월 3일 크리에이티브와 1000만 달러의 온라인 수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학관 내년 1월 착공

광주시는 2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설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설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위 자문, 전시 자료 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예상 남도의 정신과 문맥을 잇고 광주 문학의 다양성과 가치를 확산·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문학관은 171억원을 들여 북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일부를 증축해 지상 4층, 연면적 2500여㎡ 규모로 조성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왼쪽에서 세 번째) 전남지사가 27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최일(다섯 번째) 동산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증서를 도내 대학생 대표 5명에게 수여했다.

광주시, 직원 인권 실태 조사

광주시는 27일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설문 내용은 인권침해 경험, 규제 제도 인식,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서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한다. 개별적인 상담과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별개로 인권유부즈만에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내부에 공유하고 관련 부서가 조직문화 개선·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道, 지역대학생에 장학금

20개 대학 6476명 39억원

도내 20개 대학 졸업생 6476명이 전남도로부터 특별장학금으로 1인당 60만원을 받았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 졸업생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마련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전남도청 VIP실에서 가진 증서 수여식에는 김영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사장과 최일 동산대 총장, 전남도내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 등을 졸업 대상 대학생들이다. 진흥원은 수혜자 규모를 당초 5800여명(35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4억여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 3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희망전남 장학금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중 올해 진행이 어려운 해외연수 비용 등을 절감해 마련했다. 김영록 이사장은 "희망전남장학금은 200만 도민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방하기를 이겨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남도에서도 해상 풍력, 바이오 등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전남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으며, 522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민선7기 브랜드 사책인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전시진행 전문가 김현선씨 위촉

내년에 열리는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김현선(63·사진)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위촉됐다. 광주시는 27일 "김현선(63)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부교수를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서울대학교 이공학과와 동대학원 조경학 석사, 도쿄예술대에서 조형 디자인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4파리메종오브제, 한영수교기념전, 청와대 사랑채 기획 전시, DMZ 프로젝트 전시기획 등 전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시는 총감독 위촉을 시작으로 주제 선정,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선 감독은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

다"며 "2021디자인비엔날레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인간을 연결한 새로운 창조성이 발휘되는 진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디자인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 경쟁력이다"며 "디자인 한류의 국제적 확산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 기회가 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관람객 32만명이 찾고 수출 31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 참여예산 반영 사업 68건 선정

내달 10~27일 시민 투표

광주시는 27일 "내년 시민 참여예산에 반영할 130억원 규모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민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시민 참여 예산 대상 사업 68건을 선정했다. 종류별로 시정 참여형 31건(99억 9400만원), 시정 협치형 1건(15억원), 지역 참여형 36건(15억3500만원) 등이다. 대상 사업은 다음 달 10~27일 진행되는 시민 투표, 같은 달 31일 시민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는 3월부터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해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 시·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비를 조정했다.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최종 선정 절차에 시민 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